

‘9만전자’ 차익실현 기회?... 전문가 “반도체株 매수” 목소리

〈삼성전자 주가 9만원〉

美·中 갈등-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SK 등 반도체 주가 급등락

“반도체 주가조정, 비중확대 기회”
상상인證, 삼성·SK 목표가 상향

직장인 A(36)씨는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400주를 주당 5만4000원에 샀다. 2200만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A씨는 2년 전부터 세금을 댄 월급 실수령액 450만원가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해 왔다. 이렇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1600여 주에 달한다. 그의 투자 전략은 적중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 주식이 6개월만에 ‘9만전자’ (주가 9만원)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고민에 빠졌다. 그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차익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서초동 삼성전자 전경.

/뉴시스

‘반도체 개미’ (반도체 투자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트럼프 트리거(자유무역→전략적 보호무역)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 사이에서 급등락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답은 명쾌했다. 한 목소리로 “지금 하락할 때 사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지금 가장 쌀 때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보다 각각 1.17%, 3.04%씩 하락했다. 미·중 갈등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증권가는 반도체 ‘매수’를 외친다. 상상인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6000원에서 11만원으로 44.7%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의 빠른 회복과 파운드리 부문 적자폭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주요 고객사 인증 확보와 제품 믹스 개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말했다.

상상인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기존 3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시장은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본다.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 대한 수요가 커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도 전망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을 의미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일 기준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시장예상치(컨센서스)는 10조 14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0조 9142억원으로 55.25% 성장이 예상된다.

이익 증가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코스피 반도체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 국면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주가는 최소 4%에서 최대 36% 뛴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규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중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됐고, 반도체 역시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주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조정 시 메모리 업체들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기반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가 조정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전망은 큰 틀에서 여전히 유효한 만큼, 주종 나탈 수 있는 잠재적인 주가·수급 변동성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14일), 해외에서는 TSMC(16일)와 ASML(15일)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사모펀드 논란 중심 증권사 국감 증인명단서 전원 빠져

20일 금융위, 21일 금감원 감사

올해 자본시장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홈플러스·MBK 사태, PF 부실, 밸류업 정책 등 굵직한 자본시장 현안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르지만, 정작 증권사는 책임 추궁의 무대에서 또 한발 비켜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열고 금융당국과 시장 현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모펀드(PEF) 감독, 가상자산 규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이슈가 겹치며 정책 신뢰도와 감독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작진 롯데카드 대표 등 채택
막판 증인 추가 변수 생길수도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수장인 이덕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감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의 초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맞춰져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조작진 롯데카드 대표,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BK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단기 수익 중심의 차입매수(LBO) 구조가 기업 재무구조를 약

화시키고 장기 성장성을 훼손했다”며 “PEF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PEF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감독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 금감원장에게는 이번 국감이 첫 시험대로, PEF 검사 실효성과 자사주 규제 일관성, 밸류업 공시의 실효성 등이 주요 질의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자본시장의 주요 축인 증권사는 올해도 증인 명단에서 전원 빠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논란의 중심에는 증권사의 운용·주관 기능이 자리하지만 CEO가 증인 명단에서 거둬 제외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 역시 주요 현안에 밀려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사는 국감 직전이나 기간 중에도 증인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황성업 신영증권 대표와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최희문 당시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부회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대표 등이 추가 증인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황 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 속에서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보유비율 53.1%)을 자사주로 보유한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주관을 맡았던 점도 논란을 키웠다. 엄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운용, 판교 테크원타워 2조에 매각

평당 3320만원 판교서 최고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오피스 빌딩 ‘대어’로 꼽힌 판교 테크원타워(알파돔시티 6-2블록) 매각을 완료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카카오펙크-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컨소시엄과 매각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매각가는 약 2조원, 연면적 평당 거래가는 3320만원으로 판교 업무시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테크원타워를 본사 건물로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운용은 운용 분배금과 매각 차익을 합쳐 1조 1200억원의 이

익을 실현했다. 이는 펀드 설정액 4300억원 대비 약 2.6배 규모이며, 내부수익률(IRR)은 약 23%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에셋운용은 2017년 860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부동산 펀드를 마련해 알파돔시티 6-1블록과 6-2블록 7300평을 일괄 구매했고, 전체 연면적 약 11만평의 ‘웍드마크’ 복합업무시설 개발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통상 시행사와 건설사가 주도하지만, 이번 사업은 우리가 건축 기획, 설계 및 인허가, 시공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및 비용을 관리해 타 프로젝트보다 15~20% 절

감한 공사비(평당 510만원)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밖에 판교 테크원타워의 인접 부지에 11만평 규모의 새 복합 업무시설을 2027년 말 준공 일정으로 짓고 있고, 서울 성수동에서도 게임사 크래프톤의 사옥 건물을 2028년 초 준공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 최창훈 부회장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기업이 공존하는 4차 산업의 공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투자이념 아래 판교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입지의 장점을 잘 살린 랜드마크를 건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신탁

ACE 상장지수펀드 2종 합산 순자산 4.5조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대표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4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합산 순자산액은 전일(10일) 종가 기준 4조 578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4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처음 합산 순자산액이 4조원을 넘긴 후 20거래일 만이다. 각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 ETF가 2조 5202억원,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2조 5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연초 이후 각각 51.60%, 59.06% 성장한 규모다.

ACE 미국S&P500 ETF는 지난 2020년 8월에 상장한 상품으로, ‘S&P500 Index’를 기초지수로 한다. /허정윤 기자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해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활동 마무리

경영전략 등 아이디어 9건 제안

유안타증권은 지난 5월 초 출범한 ‘미래성장 TF’의 공식 활동을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 최종 보고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5월 7일 출범한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는 입사 10년 미만의 직원들 중 최종 선발된 21명의 직원들이 중심이 돼 경영전략과 혁신사항을 발굴

해 경영진에 제안하는 조직이다.

윌즈펍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활동 보고는 ▲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전략 ▲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 전략 ▲ 모바일 기반 고객 경험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고, 테스크포스(TF) 참여 직원들은 경영전략, 조직문화, 브랜드 마케팅,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9건의 ‘YSK 경영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